

“어떤 이점이 없을 것이라고,” 앨리스가 말했다.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조금 드러낼 기회를 얻어서 매우 기뻐했다. “하루와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세요! 지구는 자전하는 데 스물네 시간이 걸린답니다—”

“도끼 이야기가 나왔으니,” 공작부인이 말했다, “그녀의 머리를 잘라버려!”

앨리스는 요리사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. 그녀가 그 힌트를 받아들일지 궁금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요리사는 바쁘게 수프를 저어대고 있었고,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. 그래서 그녀는 다시 말했다: “스물네 시간, 저는 생각해요; 아니면 열두 시간인가요? 나는—”

“오,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,” 공작부인이 말했다; “나는 숫자를 정말 싫어해요!”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아이를 안고, 아이에게 자장가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. 그리고 매 줄의 끝마다 아이를 세게 흔들었다:

“너의 작은 소년에게 거칠게 말하고, 그가
재채기할 때 때려라:

그는 단지 짜증을 내기 위해 그렇게 할 뿐,
왜냐하면 그것이 그녀를 괴롭힌다는 것을
알기 때문이다.”

합창.

(요리사와 아기가 함께 참여한 부분):

“와우! 와우! 와우!”

공작부인이 노래의 두 번째 구절을 부르는 동안, 그녀는 아기를 위아래로 거칠게 던졌고, 불쌍한 아기는 그렇게 울어대서 앨리스는 그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:—

“나는 내 아들에게 엄하게 말해, 그가
재채기할 때는 때린다; 그는 원할 때
후추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
!”

합창.

“와우! 와우! 와우!”

“여기! 너는 원한다면 잠깐 돌봐줄 수 있어!” 공작부인이 앨리스에게 말하며 아기를 던졌다. “나는 여왕과 함께 크로켓을 하러 가야 해,” 그리고 그녀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. 요리사는 그녀가 나가자 뒤에서 프라이팬을 던졌지만, 겨우 그녀를 빗나갔다.